



제목	루미평전: 나는 바람, 그대는 불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늘봄
발행일	2014. 1. 5.
저자	Annemarie Schimmel 김순현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36
ISBN 또는 ISSN	978-8965550259

내용 요약

이슬람과 수피즘, 그리고 루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대가인 안네마리 쉘멜이 쓴 독일어판 Rumi: Ich bin Wind und du bist Feuer(루미: 나는 바람 그리고 그대는 불)을 『루미평전』으로 번역한 김순현은 『옮긴이의 말』에서 이 책의 출판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입과의 합일을 경험하고, 이별의 슬픔에 눈물짓고, 한평생 입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빼어난 시와 노래와 춤으로 녹여낸 루미! 나(옮긴이)에게 아가를 노래하는 삶과 그 재미가 어떤 것인지 생생히 일깨워준 쉘멜렛딘 루미!”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루미: 나는 바람 그리고 그대는 불』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루미라는 한 신비가의 전기에 해당하고, 제2장에서는 시인 루미를 소개하며, 제3장에서는 루미의 신관과 세계관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타락을, 제5장에서는 피조물의 상승을, 제6장에서는 기도를 각각 다룬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정화하는 사랑의 불꽃을, 마지막 제8장에서는 음악과 춤을 주제로 한다. 쉘멜이 각장의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은 ‘루미평전’에 부합하는 자신의 글을 전방위에 배치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루미의 시와 산문 구절을 인용한다.

이 책의 저자 쉘멜은 제1장 루미의 전기를 시작하면서 루미의 생일이 아닌 사망 일인, 즉 1273년 12월 초하루를 책의 시작 시점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구는 루미의 죽음과 관련 있지만 루미는 자신의 임종을 맞아 슬퍼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위로한다: 그들이 임종의 날에/ 나를 땅속 깊이 가라앉힐지라도/ 그대들은 잊지 마라/ 나의 마음은 지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나의 관이 움직이는 것을 보더라도/ ‘분리’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여라./ 간절한 만남이/ 영원히 내게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무덤 속으로 데려갈지라도/ ‘이젠 이별이구나!’하고 탄식하지 마라./ 나를 위해 복이/ 장막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